신란 탄생 850주년 대기념전 개최

3월 25일부터 일본 교토국립박물관
국보 11건 등 총 180건 성보 모여
"후손 증언 모은 매우 중요한 자료"

박영빈 객원기자



신란스님이 만년까지 직접 교정을 보던 〈교행신증〉을 설명하는 연구원.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일본불교의 최대종단인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종조, 신란상인(親鸞上人)의 탄신 850주년을 맞아 정토진종과 교토국립박물관이 함께 역대급 특별 기념전을 개최한다. 지난 2월 23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은 오는 3월 25일 개최될 특별전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일본만의 고유한 색채를 가진 다양한 불교교학이 탄생한 가마쿠라 시대. '가마쿠라 신불교' 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 정토신앙을 강력하게 주장한 신란상인의 탄생을 기리는 역대 최대규모의 특별전이 열린다.

신란을 종조로 삼는 정토진종과 교토국립박물관 측은 오는 3월 25일부터, 교토국립박물관에서 '신란 - 생애와 명보(名寶)' 라는 이름의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신란 탄생 85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정토진종의 주요한 10개 분파가 소장한 성보들을 대여받아 더욱 그 의미를 더한다.

신란은 내전과 가뭄 등으로 오랫동안 격동하던 시대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9세에 출가하여 당시 주류였던 귀족중심의 불교를 따랐지만, 대중과는 격리되어 중생을 구제하지 못하는 현실에 산문을 내려온다. 신란은 당시 전수염불(專修念佛)을 가르치던 고승 호넨(法然)의 문하로 들어가 오직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고 염불만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구제한다는 가르침을 전파했다. 이후 기존 불교계의 탄압을 받아 강제로 환속 당해 유배를 떠났지만 스스로 비승비속이라는 입장에서 염불의 가르침을 곳곳에 전파했다. 신란의 가르침은 이후 일본불교에서 중요한 사상적 변환을 이끌었으며, 가마쿠라 신불교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전시회에선 국보 11건, 중요문화재 70여점을 포함한 총 180건의 성보들이 모였다. 이중 주목받는 전시품은 신란의 증손자인 카쿠뇨(覺如)스님이 신란의 33주기를 맞아 만든 그림 전기다. 이 전기는 신란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일화를 아는 전국의 신자들과 스님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으로 전한다.

교토국립박물관 측은 "신란은 생애 다양한 저술과 편지로 자신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했지만, 자신에 대한 자전적 기록은 매우 드물다. 신란의 후손이, 사후 얼마 되지 않아 남은 증언들을 모아 만들었기에 이 그림은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동본원사판의 그림 전기는 전체 수리작업 후 최초로 대중에 공개되는 것이기에 또 그 가치를 더한다.

또 주목받는 전시품은 신란이 직접 정토진종의 가르침과 신앙을 체계화한 저술인 〈교행신증(敎行信證)〉이다. 신란이 친필로 남긴 원고와 직제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필사한 2종의 판본 등 신란 당대의 판본 3종이 최초로 한 자리에 모인다. 특히 친필원고에는 만년(晩年)까지 거듭해서 교정과 연구를 이어나간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 신란의 구도열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특별전을 담당한 교토국립박물관의 우에스기 토모후사 연구원은 "신란은 스스로를 '어리석은 중(愚禿)' 이라 자칭했다. 자기 자신이 그 모습 그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타력의 가르침을 만난 신란의 생애나, 그 고민에 마주한 결과인 신란의 가르침과 만나는인연이 되길바란다"며 특별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法, 5년 전 동굴서 기적 생환 소년 사망에 위령제

조난 시 명상으로 공포 이겨내 화제
유해 태국 운구 후 불교 장례 결정

지난 2월 16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은 태국 사원에서 봉행한 위령제 소식을 전했다. 위령제 대상은 영국 유학 중 돌연사한 자국민 소년이다.

태국 치앙라이 주 왓 프라 탓 도이와오 사원에 2018년 동굴 조난사고 생존자들이 함께 구출 되었던 '뚜앙페치 돔 쁘롬텝' 의 위령제 및 추모식을 위해 모였다. '돔' 은 2018년 6월 동굴에서 2주간 고립되어있다 극적 생환한 12명의 소년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조난된 소년들은 코치의 지도에 따라 불교 명상을 하며 배고픔과 공포를 이겨냈다고 밝혀 이목을 끈바 있다. 사망한 돔은 수색작업 중 사망한 태국 해군 사만 쿠난(37)을 추모하는 뜻에서 단기 출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영국 유학 중 돌연사 한 '뚜앙페치 돔 쁘롬텝' 의 위령제를 봉행했다. 사진출처 = 데일리메일

B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돔' 은 영국 레스터셔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튿날 사망했다. 부검이 이루어졌으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태국 언론은 돔이 머리에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돔의 시신을 인도 받지 못한 돔의 부모는 위령제에 사진과 그가 아끼던 신발과 옷으로 그를 대신했다. 함께 생환했던 축구팀 친구들은 돔의 영혼이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의식을 행했다.

2018년 함께 구조된 '쁘라차크 수탐' 은 추모사를 통해 "돔은 국가대표가 될 것이라며 지켜봐달라고 말했었다. 영국으로 떠나기 전 돔에게 '네가 돌아오면 그땐 너의 사인을 받아둬야 하는거 아니냐' 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함께 축구에 대한 꿈을 이루자고 했는데 만약 다음 세상이 있다면 함께 뛸 수 있길 바란다. 잘자 내 사랑하는 친구야 우리 12명은 언제나 함께야"고 덧붙였다.

돔과 함께 무 빠 유소년 축구팀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은 돔의 유해가 태국으로 무사히 운구되어 불교 장례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돔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브룩하우스 칼리지 축구 아카데미' 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법당 질주하는 마이크로 드론

日 진언종 사찰서 드론 레이스 개최
지역 행사로 확고히 자리매김 염원



법당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참가자들. 사진출처=테레아사 보도화면 캡쳐

장엄한 법당을 가로질러 나는 빛나는 물체. '마이크로 드론' 이라고 불리는 초소형의 드론이다.

다양한 색으로 빛나는 드론들이 법당과 경내 주변을 질주하며 '드론 레이스' 가 진행됐다. 2월 23일, 일본의 '테레아사 뉴스' 는 사찰에서 열린 이색적인 경기에 대해 보도했다.

경기장으로 이용된 사찰은 900년 역사의 샤카인(釈迦院). 진언종 소속의 고찰로 지역 신행활동의 중심점으로도 유명하다. 최근 이 사찰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드론 레이스로 전국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다.

드론 레이스란 손바닥 너비의 초소형 드론인 마이크로 드론을 일정 구간에서 조정하며 속도를 경쟁하는 경기이다. 샤카인에서는 올해로 3회째 드론 레이스가 개최됐다. 사찰이 소재한 히로시마현 후츄(府中)시는 시정사업으로 드론을 이용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지역의 역사성이 깊은 사찰이 드론 경기장으로 이용되는 것 또한 이와 관련된 이유다.

샤카인의 주지 후지이 쇼코 스님은 "아무래도 속도가 빠른 것이 주가 되기에 정밀한 조정이 어렵고, 법당 여기저기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난다. 간혹 촛대나 탑 등에 충돌하면 가슴이 철렁하긴 하나, 30g정도의 소형 드론들이라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며 웃어 보였다. 사찰을 경기장으로 쓰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취미로 드론을 조종하고 있고, 다른 국대 드론 레이스에도 참가하고 있다"며 "사찰과 드론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와 대중에게 다가가는 불교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드론 레이스는 특히 일본 전국에서 19명의 참가자가 집결, 경기는 페이스북 라이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됐다. 본존불이 모셔진 수미단을 시작점으로 사찰의 마당과 불단 주변을 돌며 공중에 걸린 표적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점수와 순위가 매겨졌다. 주지인 쇼코 스님은 전체에서 5위를 차지했다.

쇼코 스님은 "3회째 진행되면서 지역은 물론, 드론 레이스계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다. 처음엔 드론 매니아들만 모이던 경기에서 지역 주민들이 관람을 오는 등 매년 발전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꾸준한 정기개최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행사의 하나로 확고히 자리를 잡겠다"는 목표를 내비쳤다.

박영빈 객원기자

북런던 불교센터 "경영 안정화" 호소

COVID-19 장기화…불사금 모연

북런던 불교센터가 경영 안정화를 호소하며 불사금 모연을 시작했다.

지난 2월 21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은 영국 런던 북부 이슬링턴에 있는 도심 불교 포교원 '북런던 불교센터' 의 경영 지원 호소 및 성역화 불사 모연 소식을 전했다.

북런던 불교센터의 라트나프라바 이사장은 "도심 포교원은 대출을 받아 개원했고 매달 5,000 파운드(한화 약 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원리금 상환으로 지출했다. 그러나 COVID-19의 장기화로 모든 수입원이 줄어 대출금 상환 및 불교센터 운영에 심각한 경영난이 찾아왔다"면서 "우리 센터가 입주한 건물은 포교원이기도하며 명상지도사, 상담사, 요가 선생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거주지이기도하다. 이번 불사금 모연을 통해 불교센터의 경영 안정을 이루고자 한다"고 불사 동참을 독려했다.

북런던 불교센터의 목표 불사금은 75,000파운드(한화 약 12억)이다. COVID-19 이전 센터는 서점, 3개의 법당, 2개의 상담실, 1개의 다목적 강당을 통해 상담, 요가, 명상, 기공 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 대여 수입에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다. 센터 운영진과 회원들은 센터 건물에 대한 담보 대출금을 갚아 성역화에 성공해 고정 지출을 줄여 안정적인 운영과 포교를 위한 무료 불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런던 불교센터는 올 여름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북런던 불교센터 불사금 모연 포스터. 사진출처=북런던 불교센터

라트라프라바 이사장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수입원이 상당히 감소했다"면서 "만약 우리가 대출금 상환이라는 고정 지출을 없앨 수 있다면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해질 것이다. 물론 정말 낮은 가격이나 무료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기에 포교 활동에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요크 불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원한 이 도심 포교원은 유럽불교공동체 중 하나인 '트리라트나(Triratnam, 삼보회)' 소속이다. 트리라트나의 오랜 회원이자 포교원장인 샤카파다(Shakyapada)는 "트리라트나 불교는 아시아에서 시작된 불교의 관습과 경전을 서양인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